

광주 16.1cm 눈 쌓였다...광주·전남 17개 시·군 대설특보

새해 첫날까지 최대 30cm 이상 눈...세밀 한파 계속

“건강 관리 유의...시설물 안전·냉해 피해 대비도”

세밀 한파가 찾아온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졌다. **(관련기사 8면)**

30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누적 적설량은 광주 16.1cm, 화순 13.2cm, 장성 12.9cm, 담양 8.3cm, 나주 6.1cm, 곡성 5cm, 신안 흑산도 4.4cm, 장흥 유치 3.5cm, 무안 2.2cm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화순·장성·담양에는 대설경보가 발령돼 있다. 목포·나주·무안·장흥·영광·함평·영암·구례·곡성·강진·해남·완도·진도·신안 등 전남 14개 시·군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기상청은 새해 첫날인 다음달 1일까지 광주·전남에 5~2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30cm 이상의 폭설이 내리겠다.

전남 동부 남해안에도 31일까지 이틀간 3~8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은 30일 오후부터 31일 아침동안 눈이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눈은 다음달 1일 새벽부터 점차 잦아들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도 구례 성삼재 영하 14.7도 등을 기록, 대부분 지역이 영하 7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졌다.

해안에는 최대 초속 16m 이상의 바람이 불고 2~5m의 높은 파도가 일면서 곳곳에 강풍·풍랑 특보도 발령됐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쌓인 눈이 얼면서 인도·도로 곳곳이 미끄러울 수 있어 교통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안전과 비닐하우스 농작물 냉해 피해에도 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김민정기자



광주·전남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30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도심 일대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광주 유·초·중·고, 1월15일까지 전면 원격수업



광주지역 일선 학교 원격수업이 내년 1월15일까지로 연장됐다.

광주시 교육청은 30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점을 감안, 자체 논의 끝에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비대면 원격수업을 내년 1월1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등학교의 긴급돌봄은 정상 운영된다.

특수학교의 경우 전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1대1 또는 1대2 대면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수업이 원칙이지만 평가와 학년말 정리, 종업식, 졸업식 등을 진행할 경우 3분의 1 이내에서 등교수업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졸업식은 비대면 또는 학급 단위 등 최소한의 규모로 진행하고, 학부모 등

종업식 등 1/3이내 등교 가능

졸업식은 최소한 규모로 진행

외부인은 참석할 수 없다.

장휘국 교육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불가피하게 내년 1월15일까지 원격수업을 연장한다”며 “졸업식도 최소한의 규모로 진행해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조인호기자

‘우산(牛山)·와우(臥牛)·우도(牛島) 소 관련 지명 전남 최다

‘소’지명 전국 204개 중 전남 204개

전남도가 내년 신축년(庚子年) 소의 해를 맞아 전남지역의 지명을 분석한 결과 소와 관련된 총 204개의 지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국의 소와 관련된 지명 731개 중 전남이 204개로 28%를 차지해 전국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전남도에 이어 경남도 96개, 경북도 94개 등으로 집계됐다.

도내 각 시·군별로는 신안군이 우이도(牛耳島)를 비롯한 25개로 가장 많고, 이어 영암 18개, 장성 17개 등이다.

이름별로 보면 ‘우산(牛山)’이라는 지명이 고흥군 포두면의 우산(牛山)마을 등 8곳에서 실제 사용돼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종류별로는 마을이 151개인 74%가 가장 많고, 섬이 32개로 16%, 고개는 9개로 4% 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로부터 소는 농사일을 도우면서 부와 재

산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재산으로 우직하면서도 근면 성실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마을의 풍요로움을 바라는 마음으로 소가 누워 있는 형상의 뒷산이나 섬을 ‘우산(牛山)’, ‘와우(臥牛)’, ‘우도(牛島)’ 등으로 부르는 지명이 많았다.

그동안 우리 민족은 소를 아끼고 보살피면 집안과 마을이 번창한다고 믿어 왔으며 이 같은 믿음이 지명에 반영됐다.

나주시 노안면에 있는 ‘구축(九丑)’ 마을은 옛날 선비가 아홉 마리의 소를 기르면서 마을을 발전시켰다는 전설에 따라 이름이 지어졌다.

이밖에도 산에서 소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해 불려진 봉탄면의 ‘우명산(牛鳴山)’을 비롯해 어린 송아지를 매매하던 시장 주변에 하천이 있어 ‘송아지 독(糞)자’와 ‘내 천(川)’자를 쓴

영암군 학산면의 ‘독천(糞川)’이라는 지명도 있다.

전남 대표 관광지인 강진 ‘가우도(駕牛島)’의 경우에도 강진읍 보은산이 소의 머리에 해당하고 섬 모양이 소의 멍에처럼 생긴 것에서 지명이 유래했다. 또한 ‘가우’는 가마나 상여 또는 짐수레를 끄는 소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소와 관련된 지명은 다른 여러 십이지 동물과 비교해 용, 말 다음으로 많아 재미있는 이야기를 품고 우리 국토 한편에 자리를 잡아 왔다.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최근 구례군 양정마을에서 수해 참사를 딛고 쌍둥이 송아지가 태어나 지역 주민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며 “풍요로움의 상징인 소의 해 신축년을 맞아 도민 모두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신정 휴무로 다음호 1월 4일자 발행합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